

세계기도정보

[세계] 수단부터 가자까지...국내난민 7천590만명 '집계이래 최다'
 [이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
 [브라질] 브라질 작은 교회들, 홍수 이재민들 도우며 하나님 사랑 전해
 [누벨칼레도니] 유혈소요로 4명 사망...12일간 비상사태 선포
 [튀르키예] 비잔틴 초라 교회 모스크로 개조...이슬람 정당 달래기 '논란'
 [한국] 법원 "성전환 수술 없어도 법적 성별 정정 허가"
 [중국] 통제 강화하는 중국...후대전화 불심검문 규정까지
 [우크라이나] 1차 방어선도 없는 우크라 제2도시...“러군 그냥 걸어들어왔다”
 [토고] 아프리카 토고 총선서 여당 압승...대통령, 개헌안 공포
 [아이티] 아이티 서북부 폭우 계속...홍수·산사태로 13명 사망
 [스리랑카] 사찰·사원에 둘러쌓인 교회...괴롭힘과 방해에도 믿음 지켜
 [멕시코] 멕시코 이달고 기독교인들, 종교적 박해로 고향 떠나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경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2024. 5 멕시코에서



담임목사 김성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어깨동무하며 오는 고난 (쿠바)!

5월 22일 화요일, 까마웨이의 라몬목사와 6월 모임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까마웨이의 목회자 모임을 조율하는 조율자다. 간질에 걸린 두 아들과 아내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한다. 6월 24일 쿠바를 들어가는 까를로스 목사와 크리스토퍼 목사 편으로 이들이 필요한 약이 전달되지 못하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꼭 필요한 약품들은 이곳 멕시코나 코스타리카에서 기부되는 약품에 들어오길 함께 기도한다. 기도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기도가 최고의 도구다. 라몬 목사가 이번 달 까마웨이의 상황을 설명한다: “목사님, 지금은 하루에 20시간 정도 정전입니다. 집에 냉장고가 있지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34~35도의 습하고 무더운 여름인데 하루에 20시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선풍기가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물었다: “요즘 지역교회들 예배 시간을 낮으로 이동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랜턴을 충전해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워졌으니” 그의 말처럼 3월에 방문했을 때도 여러 교회가 낮에 모이고 있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사람들이 일하러 나갈 수가 없었다. 전기 없는 세상은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였다.

라몬과 이야기하면서도 친구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다. 쿠바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쿠바로 가져오는 의약품의 경우 검사나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었다. 6개월씩 계속 연장을 거듭해 왔는데 올해 5월 10일에 이 연장 조치를 올해 6월 30일까지로 제한 하겠다는 공지가 발표되었다. 쿠바의 상황은 좋아진 것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몬 목사 가족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가 조달하는 약으로 지탱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난 분명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열린 문 (과달라하라, 메리다)..

4월 27일 토요일, 오늘은 과달라하라 행복한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 행사를 하는 날이다. 좁은 예배당에 놀이기구들과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었다.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불판 앞에서 서서 환하게 웃으며 따꼬를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5월 한 달은 소속 교회 마다 어린이 행사를 가진다. 과달라하라 행복한교회는 출석 어른이 120명인데 아이들이 60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멕시코에서 목회자 양성을 위한 제자훈련은 이제 단 한 명만이 남았다. 멕시코 내에서 나의 사역은 막힌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기간 소속교회들과 연합하는 교회들 안에 어린이 사역이 일어남을 본다. 그리고 복음 선포의 기회들이 주어진다.

5월 23일부터 나는 한 달의 일정으로, 메리다로 들어간다. 첫 번째 방문의 목적은 쿠바 목회자들을 대신해 메리다 지역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일이다. 쿠바에 전달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이 코스타리카와 이곳 멕시코 지역교회에서 모아져 나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매달 멕시코에서만 쿠바를 위한 특별 현금 900~1,000불이 모인다. 이번에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며, 지역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강의와 함께 또 설교할 기회들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나는 지역교회에 그리스도의 감사를 전하고 싶다.

메리다 방문의 두 번째 목적은 올 2월에 있었던 1차 교사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들을 방문해 그들이 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사역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일이다. 2월에 세워진 현지 교사들을 통해 6월 15일 2차 교사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메리다는 지금 40도가 넘는 무더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2차 교사 세미나를 위해 매주 17명의 현지 교사가 함께 모여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올 2월 한국에서 이곳에 부린 어린이를 향한 열정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다. 올 2월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며, 우리 중 누구도 이 일이 이렇게 펼쳐져 나갈 것이라 상상한 이가 없다. 나는 이번 2차 세미나에 치아빠스에 있는 친구 빠꼬 부부를 초대했다. 내년 1월에 있을 3차 세미나 장소 중 한 곳이 치아빠스다. 코로나에 걸린 나를 걱정해, 이구아나를 구워주었던 곳,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원숭이 한 마리를 기꺼이 내어주었던 곳, 난 그곳의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꿈을 꾸다. 이번 2차 교사 세미나가 메리다와 치아빠스를 연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쿠바)..

6월 24일 월요일, 쿠바를 향해 코스타리카에서 까를로스 목사와 멕시코에서 크리스토퍼 목사가 들어간다. 의약품과 함께 현지 목회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6~9월 후원비를 들고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이동식 신학교의 마지막 과목을 까마웨이에서 나누게 될 것이다.

10월 28일 까마웨이에서 있을 마지막 학생들의 졸업식과 안수식을 위해 나도 19월 23일 쿠바행 비행기표를 구입했다. 매년 나를 향한 이민청의 재제를 경험하며 요즘은 매 순간 이번이 마지막 방문일 것으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준비한다. 올 10월을 마지막으로 10여년 지속된 우리의 이동식 신학교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기도제목:

1. 5월 2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될 메리다 순회 설교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소서.
2. 6월 15 일날 메리다 현지 교사들이 진행할 2차 교사 세미나를 통해 제자가 제자를 낳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3. 6월 25일부터 진행되는 쿠바 사역을 위해 들어가는 팀원들의 출입과 참석하는 모든 자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 주소서.